

# ‘입원대기중 사망’ 막아라... 경증자 수용 치료센터 오픈

확진자 476명 늘어나 총 4212명  
대구 지역서 377명 추가 3081명  
160명상 대구 생활치료센터 열어  
정부, 내주 1000명 수용센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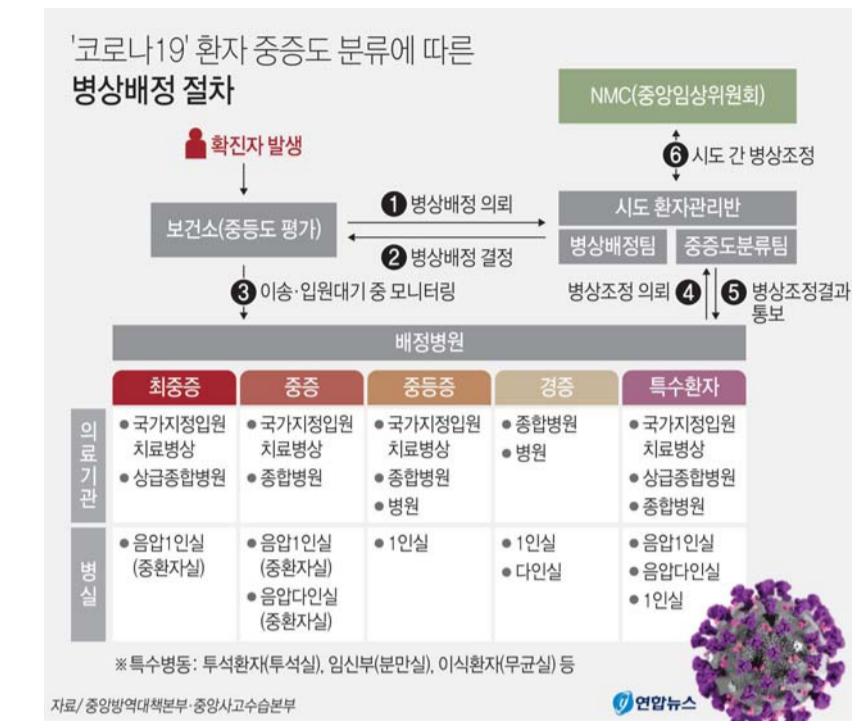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는 가운데, 대구 지역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중증 이상 환자만 입원치료 하는 새로운 대응지침을 긴급 마련했다.

### ◆입원 못한 고령 사망자 늘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 47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확진자수는 4212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지난 달 26일 처음 1000명을 넘어선 지 5일 만에 4000명을 넘어섬, 증가세에 가속이 붙었다.

대구에서 377명이 추가로 발생하며 총 확진자수 3081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경북에서도 68명이 추가 발생하며 확진자가 624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한다.

사망자도 26명으로 늘었다. 이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이던 81세 남성, 71세 남성, 65세 남성, 86세 여성 등 4명이 사망했다. 지난 이틀간 대구 8명, 경북 1명 등 이 지역에서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지역 병상 부족 문제로 자가 격리 중 사망하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전일 대구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기다리던 77세 여성 두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자가격리 중이던 74세 남성과 70세 여성이 호흡근관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 ◆경증환자 치료시설 문열어

정부는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지침을 개정(7판)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자는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

증' '최중증'으로 구분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치료를, 그 외 환자는 입원 병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중 경증환자의 비중이 80~81%를 차지한다.

고위험군도 지정했다. 고위험군은 모두 중증환자로 분류돼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다.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 신장·간·폐·심혈관 질환자,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혈액암 환자, 당뇨 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모두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고도 비만자와 임신부, 투석 환자, 이식 환자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환자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수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합산한 점수가 4점 이하이면 경증, 5~6점은 중등도, 7점 이상은 중증·최중증이다. 환자의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식 여부와 기저질환, 체온 등을 판단해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분류한다. 무증상과 경증은 시설에 격리하고, 중증 이상만 입원 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대구 중앙교육원수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처음 열고 경증환자 100여명을 긴급 수용했다. 이 시설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 160명의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자들은 매일 2회씩 발열, 호흡기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 진단을 받는다. 시설에는 경북대 병원 의사와 공보의, 감염전문 간호사가 포함된 간호사 등 총 17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내 영덕 삼성인력개발원(203실)과 문경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도 개원할 계획이다. 센터가 모두 확보되면, 최소 460여명의 경증환자 수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약 2400명에 달하는 경증환자 수용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최대 1000명 수용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입소자들의 식사나 폐기물 위생 처리 등 시설의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설을 찾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시설 확정 이후에도 기본 물품 배치와 인력확보, 배후 의료기관 연결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주 말까지 적어도 1000명 수용하는 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 확진 3명 중 1명 '20대 여성'... 고령자 사망률 3%

여성 확진자 62%... 남성의 1.6배  
"20~30대 女 신천지교인 많기때문"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진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은 전체 0.5% 수준이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크게 높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4212명 가운데 여성이 2621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남성(1591명)의 1.6배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 환자가

1235명으로 전체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신천지 교회 교인들 중 많은 부분을 20~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연령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망률은 고령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2명의 사망자 가운데 30대와 40대가 각 1명, 50대 5명으로 나타났다. 60, 70대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다. 80대에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전체 사망환자의 비율은 확진자 대비 0.5%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70대는

3.1%,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로 굉장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자들은 대부분 한두가지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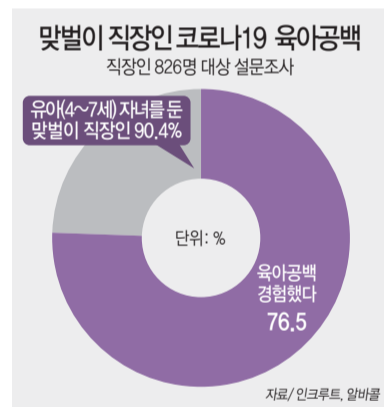
정 본부장은 "60~80대 사망자는 다 고혈압, 당뇨, 암, 기관지 질환 같은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특징이 있었다"며 "고령과 만성질환에 폐렴이 직접 사망원인이 되면서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고위험군이 먼저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2418명(57.4%)이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로 파악됐다. 대구에서 확인된 환자가 2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97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살펴보면 대구가 10만 명당 126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이 10만 명당 23.4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 맞벌이 직장인 76% 코로나에 '육아공백' 4~7세 자녀 비율 90% 달해

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약 8명은 코로나로 육아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2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달 24일~28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맞벌이 직장인 중 76.5%는 '코로나19 이후 육아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녀 연령별 육아공백 경험 비율은 △'유아(4~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에게서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교(8~13세)' 85.7% △'영아(생후~3세)' 75.8% △'중학생 이상(14세 이상~)' 53.7% 순이었다.

육아공백 해법은 '친정 및 시부모님 등 가족에 도움 요청'(36.6%)이 가장 많았고, '개인 연차 사용'(29.6%), '재택근무 요청'(12.8%), '가족돌봄휴가 사용'(7.3%),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용'·'무급휴직'(각 6.1%) 순이었다.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중'(5.6%)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

## 삼성, 코로나19 경증환자 위한 연수원 제공

숙소 300개 갖춘 '영덕연수원'  
600억 지원 이후 후속 기부 결정

삼성이 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해 다시 한번 '통 큰 기부'를 결정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삼성은 경북 영덕군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영덕연수원은 삼성전자가 소유한 시설로, 숙소 300개와 2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2017년 조성됐다. 면적은 8만5000㎡에 시설만 2만7000㎡에 달한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영덕연수원 전경. /삼성

그동안 삼성전자 임직원과 가족 힐링센터로 활용돼왔다.

삼성은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중

인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해 영덕연수원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사회공헌연구소, 연수원 운영권

자인 삼성인력개발원이 뜻을 모았다.

중대본은 시설을 경증환자들도 격리하고 의료진 관리를 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는 업무를 줄여주고, 경증환자에는 신속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삼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00억원 규모 지원을 단행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13일에는 온누리상품권 300억원을 구입해 협력사에 지급하고 '꽃 소비 늘리기'에 동참했으며, 26일에는 삼성전자 240억원 등 300억원을 긴급 지원해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에 힘을 실어줬다.

협력사를 위해서도 물품 대금 1조 6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해 상생을 실천했다. /김재웅 기자 juk@